

미국 가상자산전문은행들의 잇따른 파산 평가

황원정 | 책임연구원(3705-6156)

이상원 | 글로벌은행부장(3705-62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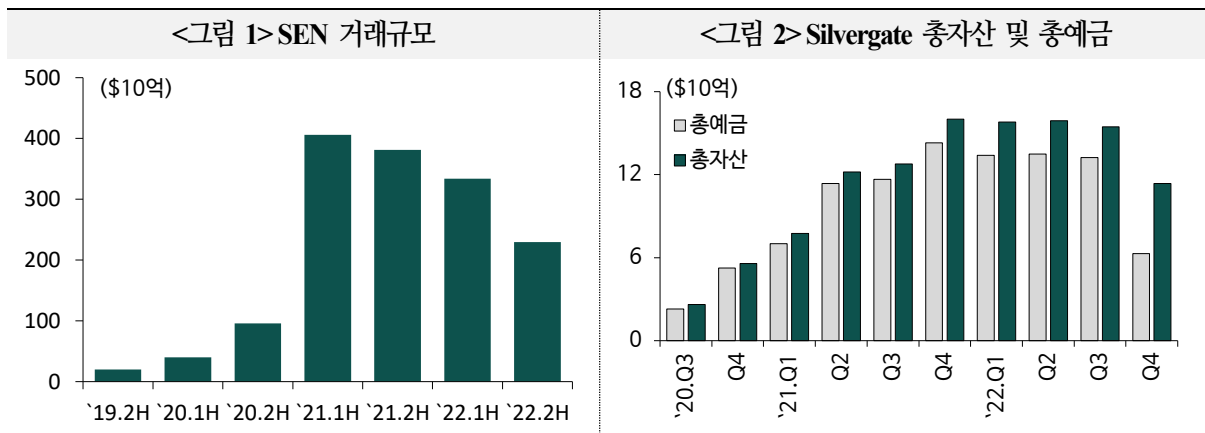
□ [현황] 지난 일주일간 2개의 가상자산전문은행*(Silvergate bank, Signature bank)이 잇따라 파산함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 및 중소 은행권에 대한 우려가 확대

* 가상자산전문은행은 전통적 은행업무 외에도 가상자산 비즈니스를 수행하거나 관련 기업들에 대한 은행업무를 수행

○ Silvergate bank는 '22년 FTX 사태 및 가상자산 시장 둔화로 예금인출 및 채권 급매에 따른 손실이 확대되며 '23.3.8일 자발적 청산^{voluntary liquidation} 선언

- '22년 말 총자산 \$113억(미국 내 은행자산 규모 128위), 예금은 '20년 초 \$20억 → '21년 말 \$143억 → '22년 말 \$63억

• Silvergate의 실시간 가상자산 결제플랫폼 SEN의 거래규모는 '21년 상반기 최고 \$4,060억에서 '22년 하반기 \$2,300억으로 급감. 주가는 '23년 초 대비 70% 이상 하락



자료: Coindesk

자료: Bloomberg

○ 아울러 미국 규제당국은 SVB 사태가 시스템 위기로 전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 가상자산은행인 Signature bank를 폐쇄하고 FDIC의 예금 전액 보장* 등을 약속

* Signature bridge bank를 설립해 예금 업무 이관

- '22년 말 총자산 \$1,104억(29위)으로 美 은행들 중 파산규모 역대 3위. 총예금 \$886억 중 약 27%가 디지털자산 고객들의 예금이며 90%는 예금보험 미적용 대상<표 1>

• Signature bank 이사 Barney Frank는 금요일 하루에만 \$100억 이상이 Chase 및 BofA 등 대형은행으로 인출되었으나, 이는 순전히 SVB사태에서 전염된 것이라면서 은행 자체의 지급능력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Fortune)

<표 1> '01년 이후 은행파산(단위: \$10억)				<그림 3> 3개 파산은행들의 예금 변화(qoq)		
은행	자산	예금	시기			
WASHINGTON MUTUAL	307	188	'08년			
SILICON VALLEY BANK	212	173	'23년			
SIGNATURE BANK	110	89	'23년			
INDYMAC	32	19	'08년			
COLONIAL BANK	25	20	'09년			
GUARANTY BANK	13	12	'09년			
DOWNEY S&L	13	10	'08년			
...			
SILVERGATE BANK	11	6	'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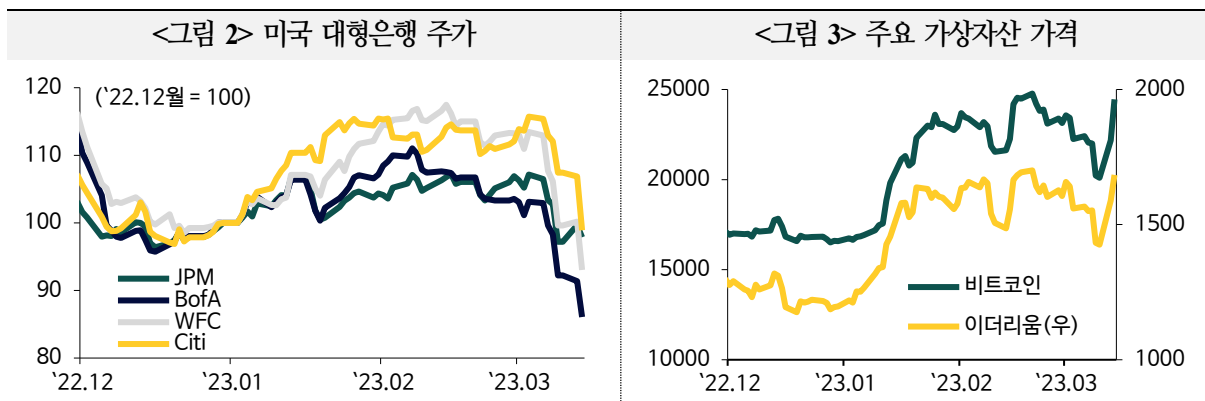
	Silvergate Capital Corp	Signature Bank	SVB Financial
Q12022	-6.3%	2.8%	4.7%
Q22022	0.8	-4.6	-5.1
Q32022	-1.9	-1.3	-5.9
Q42022	-52.4	-13.8	-2.0

자료: CNBC 자료: Bloomberg

□ [평가] 정책당국의 긴급 개입 등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 생태계에 미칠 충격과 함께 취약 중소은행들의 불안도 지속되고 있어 밀착 모니터링이 필요

- (시스템 위기 가능성 제한) 은행들의 양호한 자본구조 및 연준의 긴급대출기구 도입 등으로 가상자산전문은행 파산 사태의 시스템 전이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중론
 - 전통 중소은행의 펀더멘털은 특화은행들보다는 견조. 예를 들어 Long Beach Community Bank는 Silvergate와 자산규모는 유사하지만 자본은 2배(22.4분기 레버리지 비율 10.9% vs 5.4%)
 - 은행권 문제는 시스템적이지 않으며, 합동조치(SVB와 Signature 예금자 전액 보호, 은행권 자금 지원) 발표 이후에는 전이 가능성이 더욱 축소(Citi)
 - 상대적으로 취약성이 큰 지역은행들도 자본조달이 필요한 상황이 오진 않을 것. 美 금융당국의 합동조치는 미국 은행시스템에 대한 신뢰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JPM)
 - Capra Bank의 CEO Tut Fuller, "예금자가 보호받는 한 사람들은 은행에서 돈을 꺼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될 것이며 전염은 확산되지 않을 것"
 - 다만, 중소은행들은 대형은행보다 자금조달 여건 등이 더 취약해 경계심을 유지할 필요. 특히 부동산 불안 심화가 가세할 경우 일부 중소은행의 파산 위험이 확대될 소지
 - Moody's는 14일 Signature Bank 채권을 투기등급으로 강등했으며, 6개 취약은행(First Republic Bank, Zions Bancorporation, Western Alliance Bancorp, Comerica, UMB, Intrust)의 하향 조정을 검토(Reuters)
- (가상자산 시장 취약성 부각) 정책당국의 개입 등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단기적 불안은 해소되었으나, 주요 서비스 공백으로 유동성 위축 및 가격 약세 등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
 -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은 Silvergate 청산 이후 이틀간 8% 이상 하락했으나, 주말 이후 정책 당국의 대응 및 연준의 긴축기조 완화 기대 등으로 급등<그림 2>
 - 스테이블코인 USDC도 발행기관 Circle의 SVB 익스포저(\$33억) 발표로 가격이 \$0.88까지 하락하며 달러와 디페킹되었으나 이후 가격 회복

- 다만, 가상자산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던 중소은행들의 붕괴는 중장기적으로 가상자산의 유동성 위축 및 가격 약세 등의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 Silvergate의 SEN 및 Signature의 Signet 등 고객들의 실시간 결제를 지원하던 플랫폼이 폐쇄됨에 따라 가상자산의 유동성이 훼손될 우려(CNBC)
 - JPM은 Silvergate 청산이 가상자산 생태계의 또 다른 퇴보^{setback}라고 지적. 결제 네트워크의 신속한 대체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의 약세를 전망
 - 지난해 4분기 가상자산 벤처캐피탈 투자(전년동기대비 -61%) 및 관련 스타트업으로 현금유입이 급감(-75%)한 가운데 최근 주요 가상자산전문은행들의 파산이 가세하면서 가상자산 산업 전반의 투자심리가 올해 더욱 악화될 가능성(Blockdata, Pitchbook 등)
 - 아직 영업 중인 또 다른 주요 가상자산전문은행 Customers Bank(총자산 \$208억으로 86위)의 경우 증권투자의 미실현 손실 비중이 상당해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
 - Customers Bancorp의 미실현 손실 비중(누적기타포괄손익/총자본-누적기타포괄손익 = -10.4%)은 폐쇄된 SVB(-10.5%)와 비슷한 수준(Market Watch)
 -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공급기관들이 갑작스러운 예금인출에 대비해야 한다는 교훈을 시사. 중앙은행의 디지털통화CBDC 관련 계획 및 일정도 지연될 가능성
- (은행권 신뢰 회복이 관건) 향후 △비보험예금의 전액상환 여부 △주식·채권 투자자의 신뢰 회복 등에 주목할 필요
- 은행 자산매각 등을 통해 예금전액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NBC)
 - FDIC의 예금보험기금^{Deposit Insurance Fund} 잔액은 '22.12월 기준 \$1,282억으로 SVB 및 Signature bank의 비보험 예금규모(각각 \$1,560억 및 \$880억)에는 미달
 - 한편 주식·채권은 보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소지
 - First Republic Bank의 경우, 주말 연준 및 JPMorgan에서 긴급자금을 공급받았으나, 13일 월요일 개장 전 주가가 66% 넘게 폭락하며 거래가 중단되기도 했음(CNBC)



자료: Bloomberg